

# 주간 글로벌 철강뉴스(19년 9월 3주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## < Executive Summary >

### ◆ 바오우-마강 합병으로 초대형 철강사 등장 임박

-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우(宝武) 그룹이 마안산(马鞍山) 강철그룹(마강)의 지분 51%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(9.19)
- 양사 합병으로 현재 연산 70백만톤 수준인 바오우그룹의 생산능력은 90백만톤 규모로 확대되며, 바오우그룹은 생산능력 100백만톤 달성을 위해 추가 인수합병도 고려
- 중국 정부는 공급 측 개혁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공급과잉 해소, 수익성 개선,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영기업 중심 대형 철강사로 개편 추진

### ◆ 인도 FY2020 철강소비 성장률 6%대에 그칠 전망

- 신용평가기관 ICRA는 인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FY2019 7.9%를 기록한 철강소비 성장률이 FY2020에는 5~6%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
- ICRA는 철강가격 하락 및 수요부진으로 철강사 마진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 철강사들의 FY2020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
- 인도 경제성장률은 '19.2분기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, 내수 부진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

### ◆ 그 외 주요 뉴스

- 미국 GM 파업으로 철강 산업에도 여파
- Severstal, 러시아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 공략
- Vale, 인도네시아에 니켈 용광로 설치 계획
- 터키 철강업계, EU 쿼터강화로 자국 철강산업 타격 우려